

1.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습니다.
- ②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 ③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습니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습니다.
- 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움집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정답: ④

\* 고인들이 만들어진 청동기의 사회 모습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반달돌칼,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동검인 비파형 동검은 만주로부터 한반도 전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미송리식 토기등과 함께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같은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보여 준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는 지역에 따라 모양이 약간씩 다르다. 밑바닥이 편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빛깔은 적갈색이다. 그 외에 붉은 간토기도 사용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은 청동기 시대에 더욱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바퀴날 도끼, 흙자귀, 팽이 등의 간석기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

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 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다. 사냥이나 고기잡이도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농경의 발달로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고, 돼지, 소, 말 등 가축의 사육은 이전보다 늘어났다.

이를 통해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인구가 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으며 국가의 성립까지 이어졌다(군장국가). 이러한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꺼묻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고인들이 계급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 시대 후반(또는 초기 철기) 이후, 비파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①, ②, ⑤ 신석기인들은 농경과 목축을 처음 시작하며 식량을 생산하고 정착생활을 하였다. 거주형태는 원형의 움집이었으며,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아내고 뼈바늘로 옷을 지어입었다.

③ 철제 농기구는 철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 지어 모여 서로 노래하며 즐긴다. …… 10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대회(國中大會)로서 동맹이라 부른다.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에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서는 본채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이라 부른다.

- 「삼국지」 동이전 -

(나)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무리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을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고, 땅을 밟고 몸을 구부렸다 펴면서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추며 춘다. ……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가) -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다.
- ② (가) - 절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에 수출하였다.
- ③ (나) -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④ (나) - 음악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⑤ (가), (나) -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정답: ③

\* 초기 국가 고구려와 삼한

(가) **고구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또, 고구려에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라는 풍속이 있었다.

그리고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 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냈다.

(나) **삼한**: 마한·진한·변한으로 구성된 삼한에는 신지, 견지, 읍차, 부례와 같은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삼한은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가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제천 행사 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겼다.

특이한 습속으로 마한과 변한에서는 문신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변한과 진한에서는 어린아이의 머리를 돌로 눌러 편편하게 만든 편두(扁頭)가 존재하였다.

삼한 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특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저수지를 축조하였다(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제)

④ 동예는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⑤ 부여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는데 고구려도 비슷하였다(1책 12법).

3. 다음 법을 시행하였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범금 8조가 있다. 남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고, 남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남자면 그 집의 노(奴)로 삼으며 여자면 비(婢)로 삼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한서』-

- 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를 마련하였다.
- ③ 제가 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 ④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 ⑤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정답: ④

\* 범금 8조를 시행하던 고조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에 기반을 두고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과 북방식(탁자식)고인돌, 미송리 식 토기 등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 주는 것으로 8조의 범금(犯禁)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절도(노비로 삼거나 50만전 배상), 살인(사형), 상해(곡식으로 배상)에 관한 3개 조목의 내용만 전해진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면서 형벌과 노비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① 삼한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臣智), 작은 것은 읍차(邑借) 등으로 불렀다.

② 신라에는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는 골품 제도가 있었다.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의 범위까지 엄격히 제한하였고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은 물론, 복색이나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③ 고구려는 귀족회의인 제가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골정하였다.

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대가(大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4.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①

역사와  
오늘

###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 보장 제도

사회 보장 제도란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직적 행정을 말한다. 전통 사회의 구휼 정책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사냥을 나갔던 고국천왕이 길에서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 그 연유를 물었더니, "가난하여 품을 팔며 어머니를 간신히 모셨는데, 올해는 흉년이 극심해 품을 팔 곳도 찾을 수 없고 곡식을 구하기도 어려워 어찌 어머니를 봉양할까 걱정되어 울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고, 재상 을파소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① 진대법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 ②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 ③ 구휼찰요를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 ④ 구제도감을 설립하여 백성을 구호하였다.
- ⑤ 혜민국을 마련하여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였다.

\* 고구려의 빈민구제 제도 진대법(賑貸法)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이는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여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하고, 귀족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②, ④, ⑤ 고려는 개경과 서경 및 각 12목에는 상평창을 두어 물가를 조절하여(풍년에 곡식을 싸게 수매하여 흉년에 싸게 공급) 백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혜민국을 두어 의약을 전담하게 하였으며, 각종 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 등을 임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의 구제에 힘썼다.

③ 조선 시대에는 명종 때(1554)에 '구휼찰요'를 간행하여 초근목피 등으로 흉년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5.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보병과 기병 등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남저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적이 가득하였다. 고구려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 ①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시켰다.
- ②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③ 가야 연맹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 ④ 신라 지배자의 칭호가 차차웅으로 바뀌었다.
- ⑤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정답: ③

\* 광개토대왕의 신라 원조의 결과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391~412,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영락 사용)은 백제를 굴복시켜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거란과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여 오랜 숙원이던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쪽의 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켰다.

한편 노복(奴僕)이 되겠다고 맹세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 내 몰왕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이로써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의 발전을 돕고,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 가야연맹을 붕괴시키고, 대가야 중심으로 후기 가야연맹이 개편되게 하는 등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① 태조왕(53~146) 때에 고구려는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으며, 요동 지방으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② 백제 근초고왕(346~375)은 마한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여 평양성까지 쳐들어가 고국원왕(331~371)을 전사시켰다(371).

④ 고구려는 미천왕(300~331) 때에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마지막 한(漢)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내어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⑤ 신라는 왕의 칭호가 초대 박혁거세 거서간(군장)에서 2대에는 남해 차차웅(무당-제사장)으로 바뀌며 신정(神政) 정치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왕 원년 겨울, 10월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삼국사기』-

(나) 왕 16년 봄,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 ① 무령왕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② 침류왕이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③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 ④ 고이왕이 좌평과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 ⑤ 성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정답: ①

\* 백제 웅진 시기(475~538)의 역사적 사실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려 개로왕(455~475) 때에 한강 유역을 빼앗기며 전사하자 아들 문주왕은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면서(475)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지역의 정세 변화에 따라 무역 활동도 침체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5세기 후반 동성왕(479~501) 때부터 백제는 다시 사회가 안정되고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고(결혼동맹, 493),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백제 중흥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라고 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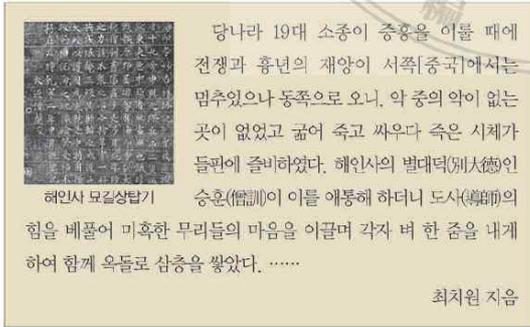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551년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신라-상류, 백제-하류), 곧 신라에게 하류 지역을 빼앗겼다(553). 이로써 나제 동맹은 완전 결렬되고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옥천)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② 백제는 침류왕 때에 중국 동진으로부터 온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384).

③ 백제 의자왕(641~660)은 즉위하자마자 선덕여왕(632~647)의 신라를 자주 공격하여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642).

④ 백제는 고이왕(234~286) 때에 6좌평제와 관등제(16관등)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형성하였다(260).

7.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②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 ③ 신라군이 당의 군대에 맞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 ④ 지방에서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⑤ 요세가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주도하였다.

정답: ④

\* 최치원이 활동하던 신라 하대의 모습

- 제시문에서 최치원(857~?)이 지은 것과 내용이 전쟁(농민반란)과 흉년의 상황임을 통해 신라 하대임을 알 수 있다.

-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호족)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칭 성주, 장군이라 칭하며 자체적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① 백제 멸망(660) 직후 복신과 도침은 함께 부여풍을 받들어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내분으로 실패하였다(663).

② 1135년 묘청의 서경파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③ 나당전쟁에서 당군이 말갈군과 거란군을 앞세워 계속 침범하자 신라는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쳤다(675).

⑤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천태종 신앙결사체인 백련결사를 조직하였다(1216).

8.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②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③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⑤ 호국의 염원을 담아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정답: ④

\* 신문왕의 업적

신라 삼국통일 직후의 왕인 신문왕(681~692) 대에는 강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685).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①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576).

② 신라는 지증왕(500~514) 대에 이사부 장군을 시켜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역사에 포함되었다(512).

③ 신라 법흥왕(514~540)은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⑤ 선덕여왕(632~647) 때에 대국통인 자장(590~658)의 건의로(64), 주변 9개 민족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하여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645).

9. (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스스호 ○○○○년○○월○○일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청동 낙타상 출토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있는  
염주성 터에서 청동 낙타상이 나왔다.  
쌍봉낙타를 표현한 높이 1.9cm의 이  
유물은 2012년 출토된 낙타 뼈와 더불어  
[가] 이/가 외국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염주성은 [가]의 62개 주 가운데 하나인 염주의  
치소로 일본 등 대외 교류의 거점이었다.

- ①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 ③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④ 건원중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 ⑤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 발해의 경제

- 러시아 연해주는 발해의 영역이고, 발해는 62주의 큰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 발해는 9세기에 이르러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였다. 농업에서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특히,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솔빈부의 말이 유명),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수공업은 철, 구리, 금은 등 금속 가공업과 삼베, 명주, 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상경 용천부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였다.

발해는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하였다. 특히, 당과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일본과의 무역도 규모가 한 번에 수 백명이 오갈 정도로 활발하였다. 신라와는 상설 교통로인 신라도를 개설하여 견직물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경제 교류가 있었다.

발해의 수출품은 주로 모피, 인삼 등 토산물과 불상, 자기 등 수공업품이었다. 수입품은 귀족의 수요품인 비단, 책 등이었다.

①, ③ 통일 후 신라는 당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무역이 번성하며 울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8세기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828)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④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발행되었다. 성종 때에는 최초의 화폐로 철전인 건원중보(996)를 만들었다.

⑤ 신라는 5세기 말 금성(경주)에 시장을 열어 물품을 매매하게 하였고(소지왕: 490), 6세기 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지증왕: 509).

10. (가), (나)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백제의 견훤은 흉포하고 무도하며,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임금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였습니니다. (가) 계서 이를 듣고 잠을 자고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여 마침내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였으니, 그 옛 임금을 잊지 않고 기울어지고 위태로웠던 신라를 바로잡고 도우심이 또한 이리하였 습니다. …… (나) 계서는 정종의 고명(顧命)을 받으셨는데 …… 쌓기가 투탁하여 온 이후로는 문사(文士)를 존중하고 중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예우함이 과도하게 후하였습니니다.

- ① (가) - 흑창을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다.
- ② (가) -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나) -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④ (나) -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 ⑤ (가), (나) -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①

\* 고려 태조와 광종의 정책

- 제시 자료는 최승로의 5조 치적평 중 태조와 광종에 대한 평가이다.

(가) 태조: 국민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918~943)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호족 통합을 위해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사성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

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발해가 거란에 멸망당했을 때(926) 태자 대광현을 비롯한 고구려계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해오자, 태조는 이들을 우대하여 민족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나) 광종: 왕조 초기의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949~975)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후주 출신 귀화인 쌓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960).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③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방 주요 거점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983).

④ 신라는 통일 후 지방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上守吏)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⑤ 직역의 대가로 현직 관료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경정 전시과는 문종 30년(1046)에 실시되었다.

11.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문화유산 카드**

(가)

- 종목: 국보 제84호
-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 소개: 이 석불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서산 일대에서 부여로 가는 길목에 조성된 것으로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꽃잎을 새긴 대좌 위의 여래상은 전체 얼굴 윤곽이 둥글고 풍만하여 백제 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정답: ①

\* 백제의 미소 서산마애삼존불

**용현리 마애삼존불(국보 84호):** 충남 서산 소재한 7세기 백제의 마애불(벼랑 표면에 새긴 불상) 중앙에 여래 입상의 거구를 양각하고 여래의 오른쪽에 보살 입상을, 왼쪽에 반가사유형 보살좌상을 배치하였다. 온화한 미소가 매우 특징적이며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운다.

②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일명 은진 미륵): 충남 논산 은진면 소재.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시대 최대의 석불입상. 유난히 머리가 커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④ 용미리 석불 입상(보물 93호): 경기 파주 재. 천연 암벽을 조각하여 1쌍의 석불을 만들. 왼쪽 석물은 둥근 모자를 오른쪽 석불은 사각형 모자를 썼다.

⑤ 경주 배동 삼존여래 입상 (배리 석불 입상: 보물 63호) 중앙의 본존과 좌·우 협시상으로 구성된 삼존불 입상으로 푸근한 자태와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어 7세기 신라 조각의 정수를 보이고 있다.

1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 ②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여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 ③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 ④ 교관검수를 내세워 이론 연마와 실천을 함께 중시하였다.
- ⑤ 삼국유사를 저술하여 불교 중심의 민간 설화를 정리하였다.

정답: ①

\* 불교개혁운동을 추진한 지눌(1158~1210)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장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정화 운동).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 운동을 창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처럼 조계종은 지눌이 수선사를 열면서부터 매우 흥성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계의 중심적인 종파가 되어 많은 승려를 배출하였다.

지눌은 선(禪)과 교(敎)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관련: 권수정혜결사문). 또한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② 고려 후기 각훈이 쓴 해동고승전(1215)은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만 남아 있다.

③ 광종(949~975) 때에 활약한 균여는 화엄 사상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융합시키려는 성상융회(性相融會) 사상을 통해 광종의 왕권 강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고, '보현십원가'라는 향가를 지어 불교와 세속간의 경계를 없애 불교의 대중화를 꾀하였다(성속무애).

④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의천(1055~1101)은 교종(이론)과 선종(실천)을 겸하여 수행하자는 교관검수를 강조하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⑤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경북 군위 인각사에서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13. 다음 상황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강조의 군사들이 궁문으로 마구 들어오자,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후와 함께 목 놓아 울며 법왕사로 옮겼다. 잠시 후 황보유의 등이 대량원군(大良院君) [순(詢)]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여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7인을 죽였다. …… 적성현에 이르자 강조가 사람을 시켜 목종을 죽인 후 자결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시신은 문짝으로 만든 관에 넣어 객관에 임시로 안치하였다.

- 「고려사」 -

- ① 광군을 창설하여 외침에 대비하였다.
- ② 거란의 침략을 피해 왕이 나주로 피난하였다.
- ③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④ 만부교 사건이 일어나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 ⑤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정답: ②

\* 강조의 정변과 거란의 2차 침입

916년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킨 후 초기에는 고려와 우호 관계를 위하여 태조 대에 낙타를 선물하였으나 태조는 동쪽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적개심으로 낙타를 만부교 다리에 묶어 굶겨 죽여 거란을 자극하였다(942).

또한 정종(945~949) 대에는 거란에 포로가 되었다 재능을 인정받아 관리로 발탁된 최광윤이 사신편으로 거란의 침략성을 알려 왕에게 전달하여,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광군 30만이 조직하였다(947).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처음에는 80

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993). 그러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가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목종의 모후(母后)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불륜 관계를 맺고 왕위를 엿보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어지러운 고려 왕실을 바로잡고자 정변을 일으키어,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켰다(1009).

거란은 이를 구실삼아 2차 침입(1010)을 하였고, 개경이 함락되자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 때 양규는 흥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후 고려는 입조와 강동6주 반환에 응하지 않자 거란은 소배압을 시키어 3차 침입을 하였다(1018).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맞서 싸워 살아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이후, 더 이상 거란의 침략은 없고, 송, 요, 거란 사이에 균형적 평화가 100여 년간 있었다.

⑤ 광종은 광덕(950)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다가 중국의 후주가 건국되자(951)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며 통교하였고,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다가 후주를 계승한 송이 건국되자(960), 외교관계를 맺고(962) 이후로는 송의 연호를 사용하였다(963).

14. 밑줄 그은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 ㉡. 양현고를 설치하여 장학 기금을 마련하였다.
- ㉢.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두어 운영하였다.
- ㉣. 수도에 4부 학당을 두어 유학 경전을 교육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③

\* 고려의 관학 진흥책

고려 중기에는 최종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사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자감의 관학 교육은 위축되었다. 이에 정부는 관학 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다.

예종(1105~1122)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전문 강좌(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양현고)을 두어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였고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인종 때에는 경사(經史) 6학 제도를 마련하고, 향교 중심의 지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 통일신라기 원성왕(780~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788)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 조선 태종 때에 한양 재천도(1405) 후, 중등 교육기관으로 5부학당 설치(->4부학당)을 설치하였다(1411).

15.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고종 12년, ..... 이때부터 (가) 은/는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하여 여기에 소속시켰으니, 이를 비칙지라고 불렀다. - 『고려사』 -

○ 고종 14년, (가) 의 문객들은 당대에 이름난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3번(番)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서방에서 숙직하도록 하였다. - 『고려사』 -

- ① 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②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제안하였다.
- ③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⑤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정답: ④

\* 최씨 정권 2대 집권자 최우에 대하여

1196년 이의민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최충현(1196~1219)은 정권을 잡자,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 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책은 흐지부지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최충현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최충현의 뒤를 이은 최우도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고,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1225)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마별초와 기존의 야별초(좌,우 별초로 분화)에 신의군을 더하여 삼별초를 조직하여 무력기반을 크게 확충하였다.

정국이 안정되자 최우는 서방(1227)을 설치하고 문사들을 등용하여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의 집권기에 고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몽골은,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였다(1231). 이로부터 고려는 40여 년 동안 몽골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1차 침입 강화 후, 1232년 최우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이 때 최우 정권은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고종 23년(1236)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제작하기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에 완성하였다.

① 1135년 묘청의 서경파는 서경천도가 실패하자 청제건원, 금국정벌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

③ 고려 의종(1146~1170)이 향락에 빠지는 실정과 문신 우대와 무신 차별에 따른 무신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이 보현원 행차에서 정변을 일으키어(1170),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여 거제도로 귀양 보낸 후,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⑤ 무당파인 승려인 신돈은 공민왕에 의해 설치된 전민변정도감(1366)의 판사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에 의해 부당하게 검병당한 토지와 강압에 의해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였으나 공민왕의 친정과 권문세족의 반발, 신진사대부들과의 융화문제로 결국 제거되었다.

16.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그림은 고려·원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몽고습래회사(蒙古襲來繪詞)의 일부입니다. 고려가 원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던 시기의 사실에 대해 말해 볼까요?



- ①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습니다.
- ②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습니다.
- ③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습니다.
- ④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 대장경을 간행하였습니다.
- ⑤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답: ③

\* 원 간섭기(1270~1351)의 역사적 사실

몽골과의 40년 항쟁 끝에 강화하고 개경한 도(1270)를 한 이후, 고려는 두 차례(1274, 1281) 실시된 원의 일본 원정에 군대와 물자의 제공을 강요받았다. 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고, 왕실의 호칭과 격이 부마국에 걸맞은 것으로 바뀌었다(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아울러 관제도 개편(중서문하성+상서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되고 격도 낮아졌다. 원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군사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고 순마소(경찰 기능)를 통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한편, 원은 공녀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으며(결혼도감 주관),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특수 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소주, 설령탕)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호복, 연지, 족두리, 장도), 몽골어(수라, ~치)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①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아낸 후 강감찬의 건의에 개경 주위에 나성을 쌓고 유소가 왕명을 받아 덕종~정종 때에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국경의 경비를 강화하였다(1033~1044).

② 최충헌 집권기에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중심이 되어 “장군과 재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부르짖으며, 신분해방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1198).

③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위 관리인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 충렬왕 때에 도평의사사로 개칭되었고(1279), 그 구성원 수도 증가하여 귀족 연합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④ 고려 현종 때에 거란의 침입을 부처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려고 초조 대장경을 조판하였다(1011~1087).

⑤ 고려 숙종~예종 때에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9성을 쌓았다(1107).

17.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시대의 문화유산

건축	(가)	 만월대
불상		 하남 하시창동 철조 석가여래좌상

- |  |   |   |
|--|---|---|
| ①<br><br>봉정사 극락전  | ②<br><br>법주사 팔상전   | ③<br><br>수덕사 대웅전 |
| ④<br><br>성불사 응진전 | ⑤<br><br>부석사 무량수전 |   |

정답: ②

\* 고려 시대의 건축 문화유산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고려 시대의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불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석불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거대한 불상도 조성되었다. 또,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좌상같이 신라 시대 양식을 계승한 걸작도 있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②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은 조선 후기(1605)에 건축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이다.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사헌부 대사헌 허응 등이 시무 7조를 올렸다. “…… 주·부·군·현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鄉願) 가운데 일 삼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가) 음/를 설치하고, 아무 때나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활한 향리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혁기(革去)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 「태종실록」 -

○ 현남 김대가 아뢰기를, “백성을 괴롭힘은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는데, 수령도 반드시 다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데, 비록 경제소가 있더라도 귀와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규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 (가) 의 법은 매우 훌륭했습니다만 중간에 폐지하여 이러한 큰 폐단이 생겼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

- ①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되었다.
- ② 대성전을 세워 선현에 제사를 지냈다.
- ③ 옥당이라고 불리며 경연을 담당하였다.
- ④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다.
- ⑤ 매향(埋香)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정답: ①

\* 유향소에 대하여

조선 시대에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士族)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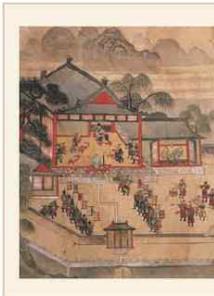
이들이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인 유향소(향청)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서 좌수, 별감 등이 회의를 주도하였다.

② 문묘(공자와 그의 제자들과 대유들을 배향)를 둔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대성전에서 매년 봄, 가을에 공자에 대한 제사를 드렸다(석전제).

③ 흥문관은 일명 옥당으로 불리우며 성종 때에 집현전 계승하여 설치되었고, 주로 왕의 자문 및 경연 강의, 경서·사적의 관리, 문翰(文翰)의 처리를 담당하였다.

④, ⑤ 고려와 조선의 촌락의 농민 조직으로 두레와 향도가 있었다. 두레는 공동 노동의 작업 공동체였고, 향도는 불교 신앙의 하나로,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활동인 매향 활동의 기반과 동계 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모두 띠었다. 고려 시대의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19. 밑줄 그은 ㉠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 작품은 야언사준도로 김중서가 ㉠두만강 일대에 흠어져 살던 야인들을 몰아내고 동북면의 6진을 개척한 뒤의 일화를 그린 것이다. 그림 속에는 연회중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큰 술병에 쫓히자, 다른 장수들은 겁을 먹었지만 김중서는 침착하게 연회를 진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보 기>

- ㄱ. 강경책의 일환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ㄴ.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 ㄷ. 초량에 왜관을 설치하고 개시 무역을 실시하였다.
- ㄹ. 한양에 북평관을 개설하여 조공 무역을 허용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여진족에 대한 조선의 대외정책

조선은 초기에 여진에 대하여 회유와 토벌의 양면 정책을 취하였다.

회유책으로 태종 때에는 국경 지방인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두고 국경 무역을 허락하였고(1406), 세종 때에는 여진 사절단을 대접하는 곳으로 서울 동대문 인근에 북평관(야인관)을 설치하여 조공무역을 허락하였다(1438).

강경책으로는 최윤덕 장군을 시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을 확보하여 북서 4군을 설치하고(1443), 김종서 장군을 시켜 두만강 하류 일대까지 확보하여 동북 6진을 설치하였다(1449).

일본에 대해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계속된 왜구의 침략으로 폐해가 심해지자 조선은 무력으로 왜구를 격퇴하는데 노력하며,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 오면 일부 항구를 개방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세종 때에는 왜구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하여 이종무를 시키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대마도)을 토벌하였다(1419).

또한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건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그러나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 왜란(1510), 사랑진 왜변(1544), 을묘왜변(1555)이 발발하자 폐쇄와 재개를 거듭하며 부산포를 제외하고 폐지하다가, 임진왜란으로 국교 단절이 되었다.

이후 1607년 국교가 재개되어 왜관이 부산 두모포에 설치되었다가, 1678년에는 초량에 왜관을 설치하고 업무가 이전되며 개시 무역이 본격화 되었다.

20. (가) 교육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주세붕이 처음 (가) 을/를 세울 때 세상에서는 의심하였습니다. 주세붕은 뜻을 더욱 가다듬어 많은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물리쳐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가) 을/를 세우는 가르침을 동방에 흥하게 하여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아지도록 하려는 것인가 봅니다.  
- 『퇴계선생문집』 -

- ① 학술 연구 기구로 청연각이 설치되었다.
- ②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 ③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 ④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 ⑤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노비 등을 받기도 하였다.

정답: ⑤

\* 서원에 대하여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생겨난 사학(私學)으로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1543). 그 후 1550년(명종 5년) 후임 풍기 군수 이황의 건의로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 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사액 서원은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의미하고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토지와 노비 그리고 서적을 내려받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부여하여 실제로는 관학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서원은 보통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선현을 제사하는 공간인 사당과 기숙 시설인 동재와 서재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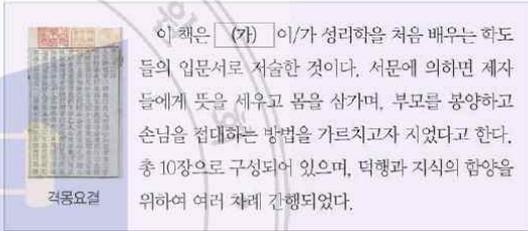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지방 문화의 발전과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① 고려 예종(1105~1122) 때에는 관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궁중 안에 청연각, 보문각, 천장각, 임천각 등의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②, ③ 향교는 관학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균관처럼 성현에 대한 제사(대성전: 공자 제향)와 유생의 교육(명륜당)을 하였으며,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향교에는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종6품) 또는 훈도(종9품)를 파견하였으며, 5~7결의 학전을 지급하여 그 수세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④ 고려는 중앙에 국립대학으로 국자감(국학)이 설치하였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과 같은 유학부와 율학, 서학, 산학 등의 기술학부가 있었다.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 관리의 자제가 입학하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21.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추진하였다.
- ②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 ③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 ④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사화가 발생하였다.
- 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를 둘러싸고 예송이 전개되었다.

정답: ②

\* 이이(1536~1584)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

성리학 입문서인 '격몽요결'을 저술했다는 것을 통해서 을곡 이이(1536~158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이의 저서로는 동호문답(수미법 등 개혁안), 성학집요(통설.수기.정가.위정.성현도통으로 구성), 격몽요결(성리학의 아동용 입문서) 등이 있다.

이이는 선조 대(1567~1608) 초기에 활동했음으로 선조 대의 역사적 사실을 골라야 할 것이다.

①, ③ 광해군(1608~1623) 대에 공납의 개혁으로 경기도에 한해 대동법(공납의 전세화와 수미법)을 실시하였고(1608),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② 선조 대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1575).

④ 연산군 때에 그의 생모인 폐비 윤씨 사사(賜死) 사건을 둘러싸고 훈구대신들과 사림들이 화를 입는 갑자사화(1504)가 있었다.

⑤ 현종 대(1659~1674)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에서 자의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기해(1659), 갑인(1674) 2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

22.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임금이 백성을 대할 때는 귀천이 없고 내외 없이 균등하게 적자(赤子)로 여겨야 하는데, 노(奴)라고 하고 비(婢)라고 하여 구분하는 것이 어찌 똑같이 동포로 여기는 뜻이겠는가. 내노비(內奴婢) 36,974명과 시노비(寺奴婢) 29,093명을 모두 양민으로 삼도록 허락하고 승정원에 명을 내려 노비 문서를 모아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도록 하라.

- ① 청화 백자를 제작하는 장인
- ② 상평통보로 물건을 구매하는 농민
- ③ 제포의 왜관에서 교역을 하는 상인
- ④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 ⑤ 여러 장시를 돌며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정답: ③

\* 공노비 해방(1801)이 있었던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궁방과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① 조선 후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며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다.

②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1678)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③ 조선 초기 세종 때에는 교역 확대를 요구하는 대마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1607년 국교가 재개된 이후 부산(두모포->초량)의 왜관에서만 교역을 허락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詩社)를 조직하였다.

⑤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000여 개소가 개설되었다. 여기에는 보부상들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활동하였다.

23.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 ②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 ③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다.
- ④ 예안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⑤ 사변록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정답: ②

\* 기묘 사람 조광조(1482~1519)에 대하여

중종 반정(1506) 후 중종은 사람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김종직-김광필-조광조로 사람의 학통이 이어짐)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람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위훈(僞勳) 삭제 등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훈구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람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소격서(도교적 행사인 초제 주관 기관)의 폐지, 향약의 시행, 소학의 보급, 공납의 개선(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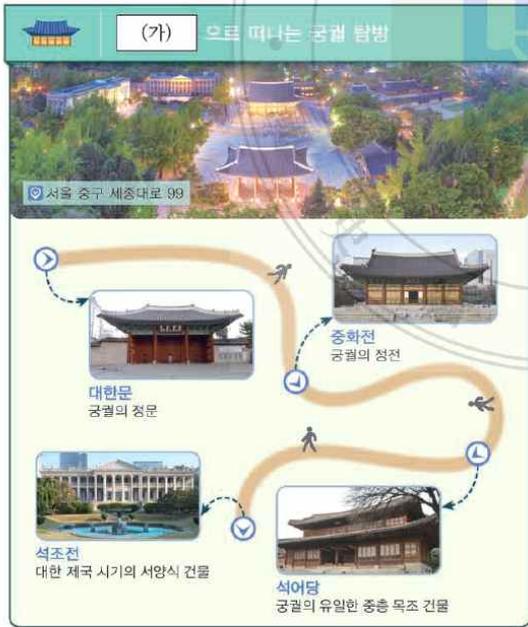
① 성종 대 영남 사람의 대표적 인물인 김종직(1431~1492)이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 마치 세조에 의해 죽은 단종을 빗대는 뜻이 보임)으로 인하여 연산군 대에 무오사화(1498)가 발생하였다.

③ 서인의 산림 지도자인 송시열(1607~1689)은 효종 즉위 직후 기축봉사(1649)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북벌 운동을 주도하였다.

④ 퇴계 이황(1501~1570) '과실상규'를 강조하는 예안 향약을 시행하였다.

⑤ 소론계의 유학자 박세당(1629~1703)은 <사변록>에서 양명학과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의 해석과는 달리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해석을 내려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리었다.

24.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이다.
- ② 도성 내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고 하였다.
- ③ 태종이 한양 재건을 위하여 건립하였다.
- ④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 ⑤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정답: ①

\* 덕수궁(경운궁)에 대하여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고, 세조의 장손인 월산대군의 사저가 있던 곳이다. 임진왜란 이듬해(1593) 선조가 한양으로 환도 후 이 사저를 행궁 삼아 거소하였고 창덕궁으로 환어하지 못하고 이 곳에서 승하였다. 광해군이 이 곳에서 즉위했으며, 무엇보다도 고종이 아관파천 후 이곳으로 환어하여 이후 대한제국의 정궁 역할을 하였다.

정문은 대한문이고 탑골공원과 함께 이곳에서 3.1운동 등이 시작되었다. 정전은 중화전이고, 별채이자 편전인 중명전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석조전은 서양식(고딕) 건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②, ⑤ **경복궁**: 조선의 정궁이며 일명 ‘북궐’. 1395년 종묘·사직단과 함께 지어졌다.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지만, ‘큰 북을 누린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왕자의 난, 임진왜란(1592) 때의 화(禍)로 정궁으로서의 역할은 실제적으론 미흡하였다. 273년 간 폐허로 있다가 흥선 대원군의 무리한 공사로 다시 지어졌다( 1865).

③ **창덕궁**: 개성에서 한양으로 환도 후 태종에 의해 지어진 이궁(1405). 경복궁이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자, 이후 약 300여년 간 사실 상의 정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 불리운다. 창덕궁은 현재 남아있는 궁궐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1997). 특히 후원(비원)의 부용정, 서향각, 주합루는 국왕의 연구, 산책 공간으로 매우 아름답다.

④ **창경궁**: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은 궁으로, 본래 ‘수강궁’이라 불리웠다. 성종 때 선대의 왕비인 정희(세조).소혜(덕종).안순(예종)왕후를 위하여 새로 짓고 창경궁이라 하였다. 일제 시대에 수난을 당하여 창경원으로 격하되어 동물원, 식물원으로 이용되고, 일제의 상징인 벚나무가 심겨지기도 하였다.

25.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결작을 징수하여 재정 부족 문제에 대처하였다.
- ② 연분 9등법을 시행하여 수취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③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 ④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 ⑤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정답: ②

\* 농사직설을 간행케 한 세종의 경제 정책

세종(1418~1450)은 농업을 중시하여 정초, 변효문 등을 시키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한 '농사직설'을 편찬케 하였다(1429).

또한 조세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6년 동안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은

끝에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이에 따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① 영조(1724~1776)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는 군역법을 제정하였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기존에 1년에 군포를 2필 부담하던 것을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③ 광해군(1608~1623) 때에 일본 대마도주와 기유약조(1609)를 체결하여 세견선 20척, 세사미 100석 이내의 범위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

④ 조선 시대의 광산은 본래 정부가 독점하여 필요한 광물을 채굴하였으나 효종(1649~1659) 때부터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하였다(1651, 설점수세제).

⑤ 과전법(1391~1466) 하에서는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러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조(1455~1468) 때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수신전과 휴양전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26.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권 강화를 위하여 장용영을 신설하였다.
- ② 나선 정벌을 위하여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③ 수도의 방어를 담당하는 어영청을 설치하였다.
- ④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 ⑤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③

\* 인조의 정책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1623)을 통해 즉위한 인조(1623~1649)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이괄의 난(1623)과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영청(1623, 수도 방위), 총융청(1624, 경기 북부 방비), 수어청(1626, 남한산성 방비) 등을 설치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 정조(1776~1800)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 도성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② 효종(1649~1659) 때에 러시아가 흑룡강 쪽으로 청을 침공해 오자, 청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두 차례(1654, 1658)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병시켜 큰 전과를 올렸다(나선정벌).

④ 숙종(1674~1720) 때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국경 경계로 하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⑤ 영조(1724~1776)는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균역법(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였다.

2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②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점령하였다.
- ③ 신립이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 ④ 이순신이 명량에서 왜의 수군을 대파하였다.
- ⑤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정답: ④

\* 임진왜란의 전개과정

1592년 4월 14일, 정명가도를 내걸고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첨사 정발과 부사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중앙에서는 선봉으로 순변사 이일을 보내었으나 상주에서 패퇴하자, 충주에서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4.29). 왜군이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 왜군은 6월에 평양과 함경도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5.4),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한산 대첩, 1592.7)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워 이겼고,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 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렬히 전사하였다(1592.10).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요청한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며 탈환했으나(1593.1.6), 벽제관에서 일본군은 명군을 대파하여(1593.1.27)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행주대첩, 1593.2) 위기에서 벗어나 4월 말에는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고 (한성 복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난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임진년과 달리 화의 기간에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1597.9,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침).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랑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며(1598.11.19) 전쟁은 끝이 났다.

②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평안도에 주둔하였던 이괄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1624)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⑤ 정묘호란(1627) 때에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28.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홍경래 등의 봉기로 정주성이 점령되었다.
- ②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회고(외교)가 간행되었다.
- ③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되었다.
- ④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다.

정답: ②

\* 정조의 업적

부친 사도세자가 참혹하게 죽은 임오화변(1762)을 통해 봉당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정조(1776~1800)는 즉위하자 곧 규장각(1776)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기구로 삼았다. 규장각에 수만 권의 책을 갖추어 두고,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규장각은 정조 시대의 문예부흥과 개혁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정조는 정국 운영을 군주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조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1785).

한편,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약용은 거중기를 제작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주교)도 설계하였다.

문화적으로는 '대전통편(법전)', '동문회고(외교)', '탁지지(재정)' 등 수많은 책을 편찬하였다. 이 밖에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①, ③ 순조(1800~1834)가 즉위한 직후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과 함께 노론 벽파가 집권하며 반대파인 천주교인이 많은 시파 남인 계열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신유박해, (1801)가 일어나 이승훈,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형제 등이 유배를 당하였다. 또한, 세도정치와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1811).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점거하며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며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④ 영조(1724~1776)는 자신의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 봉당정치의 폐해를 경계하고자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1742).

⑤ 세종(1418~1450) 때에 만들어진 역법인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29.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역사 인물 카드

- 생몰: 1786년~1856년
- 호: 추사(秋史), 안당(阮堂) 등
- 출신지: 충청남도 예산
- 주요 활동
  - 역대 서체를 연구하여 추사체 창안
  - 제주도 유배 생활 중 세한도를 그림
  - 옹방강, 완원 등 청의 학자들과 교류



- ① 거중기를 제작하여 수원 화성 건설에 이용하였다.
- ②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③ 최초로 100리 척을 활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 ④ 북학을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 ⑤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정답: ⑤

\* 추사 김정희에 대하여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의 인물인 김정희(1786~1856)는 서화(書畵) 뿐만 아니라 금석학에도 독보적인 위치였다.

대표적인 그의 그림인 '세한도'는 문인화로써 노론 벽파인 그가 제주도에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서예에서는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김정희는 청에 가서 고증학의 대가인 옹방강, 완원 등과 교류하고 돌아와 시·서·화를 일치시킨 고답적인 이념미를 구현코자 하였으며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①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은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어 정조가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②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1737~1805)은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③ 영조 때에 정상기(1678~1752)는 100리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1740).

④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30.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소론과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②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 ③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 ④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정답: ①

\* 갑술환국(1694)의 결과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경신환국(1680):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허견 역모)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원자(장희빈 소생)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반대하는 서인들을 몰아내고 집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 등이 사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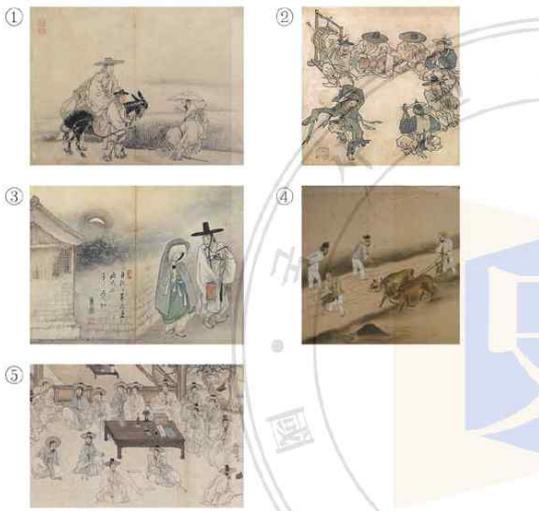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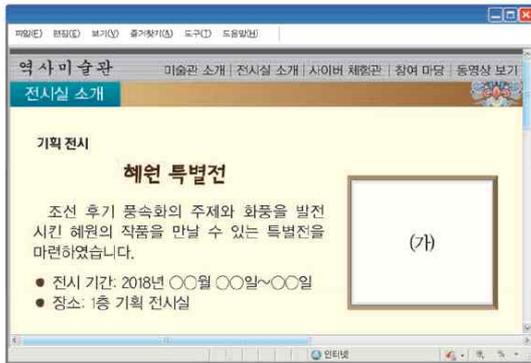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

② 명종 즉위 직후 명종의 외척인 소윤(윤원로, 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대운(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람이 연루되어 큰 희생을 입었다.

④ 광해군(1608~1623) 때에는 그를 지지하는 정인홍, 이이첨의 대북 북인 정권은 서인과 남인 및 소북 북인도 배제하며,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⑤ 선조(1567~1608) 때에 기축옥사(1589~1591) 즉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연루된 동인이 서인 정철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으나(호남 동인 몰락), 곧 정철을 광해군 세자 건저 문제로 탄핵시켜 서인 정권을 몰락시켰다(1591). 이 때 서인의 처벌 수위를 높고서 이항의 학파는 남인(온건론)을 형성하고 서경덕과 조식의 학파는 북인(급진, 강경론)으로 분화되었다.

31.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정답: ③

\* 풍속화가 혜원 신윤복

조선 후기에 유행한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특히 도화서 출신 단원 김홍도(1745~?)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발갈이, 추수, 씨름, 무동(舞童), 서당, 대장간, 자리짜기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김홍도에 버금가는 풍속화가인 도화서 출신 혜원 신윤복(1758~?)은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희,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미인도, 단오도, 월하정인도 등이 유명하다.

도화서 출신 금재 김득신(1754~1822)도 김홍도의 화풍을 계승해 해학적 분위기와 정서를 가미하여 '노상알현도', '파적도' 등을 그렸다.

① 김득신의 '노상알현도'

② 김홍동의 '무동(舞童)'

③ 신윤복의 '월하정인도'

3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열었는데 총판 홍영식이 주관하였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담장 밖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이때 민영익도 우영사로서 연회에 참가하였다가 불을 끄기 위해 먼저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밖에 흉도 여러 명이 휘두른 칼을 맞았어치다가 민영익이 칼에 맞아 당상 위로 돌이와 쓰러졌다. …… 왕이 경우궁으로 거처를 옮기자 각 비빈과 동궁도 황급히 따라갔다. …… 깊은 밤,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군대를 이끌고 와 호위하였다.

- 『고종실록』 -

- ①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
- ②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 ④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 ⑤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정답: ②

\* 갑신정변(1884.12)

조선은 임오군란(1882) 후 청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고, 다시 집권한 민씨 세력은 개화 정책에 소극적이어서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근대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등의 급진 개화파 세력에게는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1884년 청과 프랑스 사이에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자, 청은 조선 주둔군의 절반을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급진 개화파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정변을 계획하였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부 조선 군인들을 정변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0월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겨 일본군의 호위를 받도록 하였고,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죽이고 새 내각을 발

표하였다. 이어 청에 대한 사대 관계의 청산, 인민 평등권 확립과 내각 중심의 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조 개혁 정강을 국왕의 전교로 발표하고 근대적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대신들을 보면서 개화당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 왕비의 환궁 요구에 따라 고종은 다시 창덕궁으로 돌아왔다. 청군이 공격해오자 급진 개화파의 군대는 수와 무기의 열세로 패퇴하였고, 일본군은 일본 정부의 훈령에 따라 철수해버렸다. 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한편,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1)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은 갑신정변 직후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내 이홍장과 담판하여,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4).

- ① 을사의병(1905~1906) 때에 민종식(1861~1917)은 충청도 홍성에서, 최익현(1833~1906)은 전라도 태인에서 거병하였다.
- ③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등을 기치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1894).
- ④ 개항(1876)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 군인, 하층민 등에 의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1882.6).
- ⑤ 철종(1849~1863) 때에 일어난 최대의 농민봉기인 임술농민봉기(1862) 때에 진주민란(백낙신의 탐학에 저항)의 수습을 위해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되었다.

33.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진실로 황준현의 말처럼 러시아가 비록 병탄할 힘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해도, 정차 만 리 밖의 구원을 앉아 기다리면서 홀로 가까운 오랑캐들과 싸우겠습니까? 아아말로 이해 관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지금 조정은 어찌 백해무익한 일을 해서 러시아 오랑캐에게는 없는 마음을 갖게 하고, 미국에게는 일도 아닌 것을 일로 삼게 하여 오랑캐를 불러들이려 합니까?

- 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 ③ 윤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 ④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 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들여왔다.

정답: ①

\* 영남만인소(1881)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황준현의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러시아를 막기 위한 미·일과의 연대)’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상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강원도 유생 홍재학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왕까지 규탄하였다가 처형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알선에 신뢰를 갖고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1882.5).

② 신미양요 때에 미군에 맞서 강화도 광성보에서 어재연이 싸우다 전사하였다(1871.6).

③ 1875년 9월 일본 군함 윤요호가 강화해협에 불법 침입하여 초지진, 영종도를 포격하고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가 맞대응한 것을 빌미로 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약인 강화도 조약(1876.1)을 체결케하였다.

④ 1866년 9월 병인양요를 일으킨 프랑스군은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해 갔다.

3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곳 윤현궁은 (가)의 개인 저택으로 그의 아들인 고종이 태어나 12살까지 살았던 집터입니다. 원래 윤현은 자택이 위치한 곳의 지명이었는데, 고종이 즉위하면서 궁의 칭호를 받아 윤현궁이 되었습니다.



- ① 주자소를 설치하여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②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계를 정비하였다.
- ③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추진하였다.
- ④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⑤ 육의전 이외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정답: ③

\* 흥선대원군(1863~1873년 집권)의 개혁

고종의 즉위(1863)로 정치적 실권을 잡은 흥선 대원군(고종의 부, 윤현궁 거주)은 왕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즉,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정치)와 삼군부(군사)의 기능 회복하였으며 대전회통의 편찬 등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정을 개혁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하는 호포제(동포제)로 개혁하고, 환곡제를 사창제(면민의 공동출자 운영)로 개혁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영조의 서원 개혁 정책을 참조하여 서원 정리를 단행하였다. 원래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다.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①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1403)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② 영조는 왕조의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 경국대전이 이후의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속대전(1746)을 편찬하였다.

④ 철종 때에 임술농민봉기(1862)를 진압하고, 민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⑤ 정조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 정책을 시행하였다(신해통공: 1791).

35.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가) 을/를 주도한 박상진, 김한중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판결문입니다. (가) 은/는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1915년에 결성되었습니다.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②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이다.
- ③ 일제가 꾸며낸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 ④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⑤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정답: ⑤

\*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단체로, 채기중의 (대한)광복단(1913)과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이 중심이 된 조선국권회복단(1915.1)이 통합하여 출범한, 즉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들을 통합한 비밀결사체이다(1915.7). 총사령은 박상진이고 양반과 상민이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고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한 광복회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독립 의군부(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 시도)와는 달리 복벽주의(대한제국 재건)를 극복하고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만주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김좌진 파견).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건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제 경찰에게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1918). 이 때 박상진 등 주요 인물이 검거되고 사형 당하였지만 체포를 피한 일부 조직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다.

① 김원봉이 조직한 항일단체 의열단은 신채호가 쓴 '조선 혁명 선언'(1923)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③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년 결성)는, 한일병합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 날조에 의해(105인 사건) 무너지고 말았다(1911).

④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며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안이 담겨있는 헌의 6조(1898.10)를 건의하여 고종이 이를 반영한 관제(1898.11)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36.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수행 평가 보고서)

### 경제적 구국 운동

이름: ○○○

1. 배경: 아관 파천 이후 심화된 외세의 경제 침탈에 맞서 경제적 구국 운동이 전개되었다.

2. 주요 사례

단체	활동 내용
독립 협회	(가)
항국 중앙 총상회	(나)
보안회	(다)
국채 보상 기성회	(라)

< 보 기 >

ㄱ. (가) - 대동 상회, 장통 상회를 설립하였다.  
 ㄴ. (나) -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ㄷ. (다)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ㄹ. (라) - 금주·금연을 통한 치관 갱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개항기 경제적 구국운동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9)으로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이 허용되었고,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일본과 서구 열강의 상인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개항장의 객주를 비롯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일부 상인들은 외국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 동업자를 모아 상회사를 세우기 시작하여 1883년부터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이 설립되었다.

시전상인들도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항국중앙총상회(1898) 등을 조직하여 상권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아관파천(1896.2) 직후 서구 열강들은 이권 침탈을 가속화하였다. 열강들은 저마다 최혜국 조항을 내세워 광산, 삼림 철도 등의 각종 이권을 차지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선언 상소문(1898.2)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공동회(1차: 1898.3)를 열어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하여,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시키며 이전에 침탈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단 저지되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6월 일제가 토지 약탈을 위해 황무지 개간을 요구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7월에 보안회와 농광회사가 설립되었고, 8월에 이를 무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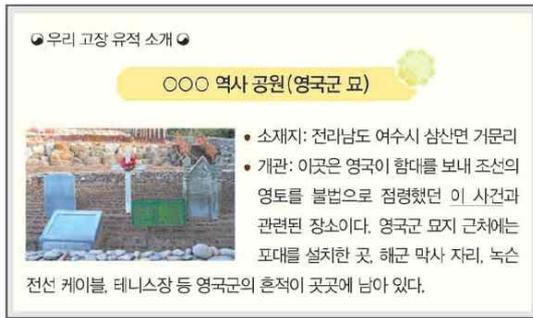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과 화폐 정리사업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차관 채무를 지게 되자, 국민의 성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1907).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로까지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주·금연으로 돈을 모으고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이에 통감부에서 국채보상회의 간사인 양기탁을 보상금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탄압했다. 결국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37.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1866	1876	1882	1894	1904	1910
(가)	(나)	(다)	(라)	(마)	
병인 양요	강화도 조약	임오 군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국권 피탈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거문도 사건(1885~1887)

갑신정변(1884.12) 이후 청·일본·러시아·영국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면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졌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의 문호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3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윤현진** 尹顯振  
(1892~1921)

경상남도 양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 한학과 신학문을 배웠다. 3·1 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가)에 참여하였고, 재무차장을 맡아 재정 문제 해결에 주력하였다. 국내에서의 군사 및 선전 활동을 위해 의용단을 조직하였으며, 안창호의 함께 (가) 운영에 힘쓰다 과로로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다.

- ①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
- ②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③ 이룡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 ④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⑤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조선 광문회에서 발간한 서적을 보급하였다.

정답: ⑤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3.1 운동의 결과물로 탄생한 4월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동년 9월 국내의 한성정부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하며 민주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헌법을 갖추고, 민주 공화제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대한국민의회 출신의 이동휘가 선출되었다. 임시정부는 입법 기관인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인 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을 두어 3권 분립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애국 공채(독립공채)를 발행하고, 국민 의연금을 걷어들이며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룡 양행(만주)과 백산 상회(부산)를 거쳐 국내외를 연계하는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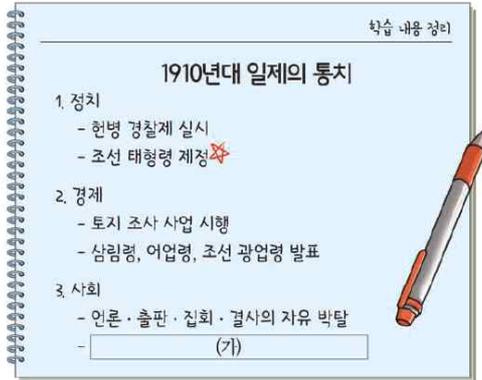
임시정부는 파리 강화 회의(1919)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을 주장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 임시정부는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배포하였으며, 사료 편찬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⑤ 애국계몽운동체인 신민회(1907~1911)는 평양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최남선의 조선 광문회의 간행 서적과 잡지 '소년'의 판매망을 확보하였다.

3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민 교육 헌장 발표
- ② 경성 제국 대학 설립
- ③ 한성 사범 학교 관계 마련
- ④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
- 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함

정답: ⑤

\* 1910년대 일제의 교육정책

한국에 대한 일제의 1910년대 식민지 지배 방식은 헌병 경찰을 앞세운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로, 헌병 경찰과 헌병 보좌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경찰범 처벌규칙'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일절 금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조선 태형령(1912~1920)을 시행하며 치안, 사법,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독부는 한민족을 위협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교원들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도록 하였다. 그것으로도 불안하여 한반도의 요소마다 많은 일본군을 주둔시켰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는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다. 1차 조선 교육령(1911)을 제정하여 일본어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 교육 연한을 4년으로 하여 일본(6년)과 차별하였으며, 한국인에게는 부러먹기에 적당한 만큼의 초보적인 기술과 실무적인 내용만을 가르쳤다. 또한 사립학교와 개량사당을 통해 민족교육이 확산되자 일제는 사립학교령(1911)과 사당규칙(1918)을 통하여 탄압하였다.

경제에서는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토지조사사업(토지세 확보 및 미등록 토지 수탈),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회사령(허가제), 삼림령, 어업령, 광업령을 공포하였다.

① 박정희 정부는 관주도의 문제가 있지만 국민교육헌장(1968.12)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웠다.

② 일제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제국대학 관제를 발표하고 1924년 설립하였다.

③ 1895년 2월 반포된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정신에 따라 동년, 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4월의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설립하였다.

④ 1941년 천황 칙령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명칭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4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 ②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 ③ 조선 혁명군이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 ④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 ⑤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조직되었다.

정답: ④

\* 6.10만세운동(1926)과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11) 사이의 역사적 사실

**6.10 만세 운동(1926):** 사회주의자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장례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학생들은 대규모 만세 시위를 진행시켰다.

**광주학생항일운동(1929.11):** 광주에서의 한 일 학생간의 충돌 사건을 일본 경찰이 편파적으로 처리하자 광주지역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① 3.1 운동(1919)

② 여운형(1886~1947)은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건국을 준비하였다.

③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을 이끈 양세봉(1896~1934)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1932), 흥경성(1933) 전투 등에서 대일 승리를 이끌어냈다.

④ 1920년대 중반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상재, 안재홍 등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완전독립론)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협동 전선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신간회를 창립하였다(1927. 2)

⑤ 중·일 전쟁(1937.7)이 시작되자 조선민족혁명당(1935.7)의 김원봉은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1937.12)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우한에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의 무장 한인 부대인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10).

41.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 노동 총동맹 결성으로 이어졌다.
- ②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 ④ 임금 삭감 반대,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였다.
- 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답: ④

\* 일제 하 노동쟁의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회사령'을 설립하였다. 회사령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 수가 많이 않아 쟁의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철폐하였다.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며 회사·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동자 조직도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자는 민족 차별적인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등 노예적인 노동 조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 운동을 벌였다.

특히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동 총동맹(1924)이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고,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과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며 노동자의 단결과 권익 옹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노동 쟁의가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노동 쟁의는 1929년의 원산 노동자 총파업(해외 노동자들의 격려 전문)과 1931년의 평양 고무공장 파업(여성 노동자 강주룡의 밀밀대 농성)이 유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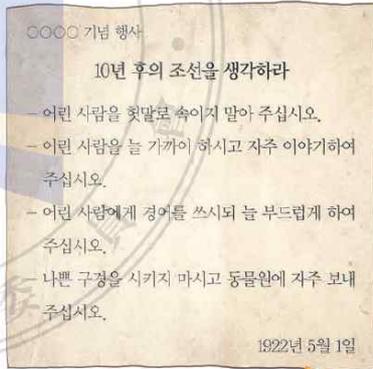
노동쟁의, 소작쟁의와 공히 1920년대의 경제적 투쟁(생존권 투쟁)에서 성장하여 일제가 농민·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1930년대에는 농민·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비합법적 조합인 혁명적 농민 조합과 노동조합(적색조합)을 만들어 점차 항일 민족 운동(일제 타도)으로 발전해 갔다.

그러나 두 운동 모두 1938년 총동원령 체제 이후에는 소멸되었다

③ 국채보상운동(1907)은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운동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⑤ 1920년대에 백정들은 일제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42. 다음 자료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잡지 근우를 발간하였다.
- ② 김기전, 방정환 등이 주도하였다.
- ③ 발명 학회와 과학 문명 보급회를 창립하였다.
- ④ 가가날을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 ⑤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②

\* 소년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

일찍이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김기전(‘개벽’ 주필), 방정환(손병희 사위, 아동작가), 이정호(아동작가)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1921)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소년 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조직체인 조선 소년 연합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소년 운동을 애국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했고, 중일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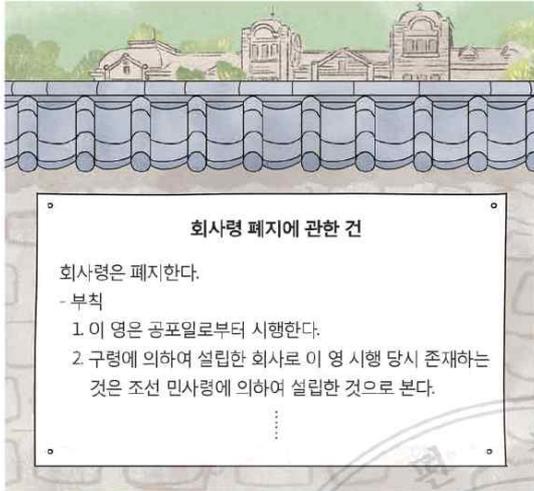
① 신간회와 유사한 좌우합작 여성 단체인 근우회(1927~1931)는 기관지 ‘근우’를 발간하였다.

③ 김용관 등의 과학도들이 중심이 되어 발명학회(1924)를 창립하고 과학조선(1933)을 발간하여 과학대중화에 힘을 썼다.

④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창립된 조선어연구회(1921)는 한글 기념일인 ‘가가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⑤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1907~1911)는 안창호가 대성학교(1908), 이승훈이 오산학교(1907)를 세우며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43.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 ②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 ③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 ④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었다.
- ⑤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정답: ①

\* 회사령 폐지(1920)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1910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1920년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철폐하였고, 1919년에는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 8월부터 조만식 등이 우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평양에서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여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었고, 1923년에는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여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와 실력양성을 도모하는 조선청년연합회, 여성단체인 토산 애용부인회 등과 함께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②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곡물 값이 크게 올랐고, 흉년으로 곡물이 크게 부족해지자, 1889년 황해도, 함경도 등지에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③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일본의 국책 회사였다.

④ 개항 이후 일본 금융 기관이 침투하자 우리나라 상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의 필요성이 커져 조선은행(1896), 한성은행(1897), 대한천일은행(1899) 등이 차례로 세워졌다.

⑤ 1차 한일협약(1904.8)에 의해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메가타에 의해 화폐정리사업(1905~1909)이 실시되었다.

44. 밑줄 그은 ㉠이 실시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남태평양 밀리 환초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들은 ㉠일제의 징용령 이후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처우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일본군에게 130여 명이 학살당하고 68명만 살아남았다. 미군에게 구조된 사진 속 생존자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다.

- 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 ②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브나로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④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⑤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정답: ⑤

\* 징용령이 실시된 민족말살기

1930년대에는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1932)을 수립하며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았다.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 전쟁(1941)을 일으키며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신민화 정책과 국가총동원령(1938)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민족말살기).

이 시기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였으며 (창씨개명, 1939), 황국신민서사(1937) 암송, 궁성요배,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인적, 물적 수탈로는, 국민징용령(1939)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1944)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자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고(1942),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산업 이외의 기업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북간도의 봉오동(1920.6), 청산리(1920.10) 등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동포를 학살하고 주거지를 불태웠다(간도참변, 1920년 10~12월)

② 1925년 6월 일제와 만주 군벌(장쥘린) 사이에 독립군의 탄압, 체포, 구속, 인도에 관한 이른바 미쓰야 협정이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의 활동은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③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브나로드'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1930년대 초 북만주의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중국군(길림자위군, 호로군)과 연합하여 토일군을 조직하여 쌍성보(1932), 사도하자(1933), 동경성(1933), 대전자령(1933)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45.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스스호 ○○○○년○○월○○일

**일본에 세워진 기억과 화해의 비**



일본 교토 우지시에 그를 기리는 '기억과 화해의 비'가 세워졌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연희 전문 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유학 중 반일 운동 혐의로 송몽규와 함께 체포되어 1945년 2월에 29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다. 이번 기념비 건립은 일본 시민들이 직접 모금하고, 지지체를 설득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이 있다.
- ② 조선어 학회를 창립하여 한글을 연구하였다.
- ③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 ④ 일제의 침략 과정을 저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⑤ 카프(KAPF)를 조직하여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였다.

정답: ①

\* 항일 시인 **윤동주(1917~1945)**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기독교적인 자아성찰과 희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그의 작품으로 '서시(序詩)', '별 헤는 밤', '십자가' 등이 유명하다.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28살 꽃다운 나이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사후 그의 친척과 동료 선.후배들에 의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이 출간되었다(1948).

② 이운재, 최현배 등이 주도하여 설립된 조선어학회(1931)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해방 이후인 1957년에 간행되었다.

③ 나운규(1902~1937)는 1926년 민족의 비애를 담은 영화 '아리랑'을 발표 하였다.

④ 박은식(1859~1925)은 <한국 통사>(1915)와 <한국 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⑤ 192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현실의 계급 모순을 적극 비판하는 프로 문학(신경향파)이 등장하여 박영희, 김기진 등이 카프(KAPE)를 결성하였다(1925).

46.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저는 지금 (가) 70주년을 맞아 큰돌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948년 토벌대의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피해 동광리 주민들이 두 달 가까이 은신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깊은 사과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역할을 알아본다.
- ②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의 설치 배경을 찾아본다.
- ③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계기를 파악한다.
- ④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마련한 유신 헌법의 내용을 검색한다.
- ⑤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정답: ⑤

\* 제주 4.3 항쟁(1948)

8·15 해방 이후 제주도는 일제하 잠복했던 좌익 세력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며, 미군정의 지지를 받은 우파 세력과의 정치적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7년 3·1절 기념집회 과정에서 미군정 경찰이 제주도민들에게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자 본격적으로 심화되었다.

결국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을 앞두고 김달삼이 이끄는 남로당의 총선 방해 운동이 극심해지며 이를 진압하는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의한 탄압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4월 3일 일제히 봉기하였다.

결국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경찰도 진압을 못하자 군이 출동하였다. 정부 수립 후에도 소요 사태는 멈추질 않고 오히려 출동군인 중에 14연대의 좌익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10.17 사건(여순 사건)이 일어나는 우여곡절 끝에 1949년 봄에 진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고, 좌익으로 몰리는 억울함이 있었다. 다행히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①, ④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1972.10. 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간선제)케 하여 장기독재가 열리게 되었다.

② 5·18 민주화 운동(1990.5.27)을 진압한 뒤 신군부의 리더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5.31.)를 조직하여 국가 주요 조직을 장악해 나갔고, 최규하 대통령의 사퇴 직후 1980년 8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③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동년 10월에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9차 헌법)이 마련되었다.

47.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 북괴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 통일 제의를 하루 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 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 특히 이번에 우리 대한 적십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 회담은 1천만 흩어진 가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5천만 동포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 주는 복음의 제의로서 나는 이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하며 그 성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 제26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

<보 기>

- ㄱ.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ㄷ.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ㄹ.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대한적십자사의 건의로(1971.8) 남북 간에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이 열렸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 노태우 정부(1988.2~1993.2) 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며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였다(1991.12). 한편 이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작성되었다.

48. 밑줄 그은 '이 사건'의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3·15 부정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 ③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다.
- ④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답: ④

\* 5.18 민주화 운동(1980)의 원인

1979년 8월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이 야당인 신민당사 일어나자, 여당과 정부는 야당당수인 김영삼을 국회 제명하였다. 이는 동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마산에서의 반유신 투쟁(부마 항쟁)을 야기하고, 집권층 내에서의 강온 진압 대립 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건으로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후,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2.12 사태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키며 정국을 장악하였다.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하자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고, 결국 도청 진압 작전을 끝으로 진압되었다(5.27).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①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노골적으로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②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1964~1973). 전투 사단의 베트남 파병(1965년 이후) 증파에 따른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군수·경비 지원 및 차관 제공을 골자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1966.3).

③ 박정희 장기집권을 위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야당과 국민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편법으로 통과되었다(1969).

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대통령 직선제)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49. 밑줄 그은 '이 작전'이 실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친애하는 ○○○ 귀하

.....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은 좁은 단일 수로로 대규모 함정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적이 기뢰를 매설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적군도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적을 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작전으로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가)	북한군 남침
1950년 7월	(나)	대전 참락
1950년 9월	(다)	서울 탈환
1950년 12월	(라)	홍남 철수
1951년 7월	(마)	휴전 회담 시작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인천상륙작전(1950.9.15.)

이승만 정부는 출범 초기 좌익 게릴라 활동, 실업과 물가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였다. 더욱이 미군이 철수하고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애치슨 선언(1950.1)이 나오는 등 국제정세도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운 우세한 전력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뒤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국제 연합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하여 16개국의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7.14).

국군과 유엔군은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했는데, 8월에 이르러 마산에서 낙동강을 따라 왜관을 거쳐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유엔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저지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으며,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하여 10월 말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10월부터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중국군의 대공세에 밀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여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평택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5월 중순경에는 38선 부근까지 진격하였다.

이후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의 제안에 따라 미·소 양국은 휴전 회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과 중국군 및 북한군은 1951년 6월부터 정전 회담을 개최하여 2년여 간 협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여 정전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전협정 체결 전에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953.6.18.).

결국 1953년 7월 27일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50.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③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④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②

\*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1993.2~1998.2)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1995),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금융 실명제(1993)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전두환, 노태우 등을 반란 및 내란죄 혐의로 구속하였다. 1996년 경제 선진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지만, 1997년에 경제 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① 1960년대는 1962년부터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주도 하에 새로 수립된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③ 2000년대 노무현 정권 이후로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2007년 일부 분야 한정 체결, 재협상 후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에 발효)이 체결되며 세계무역강국으로 부상하였다.

④ 1970년대에는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있었고 2차례(1973~74, 1978~80)의 석유파동으로 경제 불황을 겪었지만, 수출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어느정도 극복하였다.

⑤ 1950년대에 이승만 정부는 국가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농지를 유상 매수 하여 영세농민에게 유상분배 하는 방식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1950~1957).